

시장경쟁 심화로 광부품 기업 수익성 하락

「광섬유 시장 가격하락세 심화」

중국내 광섬유 수입량 증가에 따라 시장가격이 지속 하락세를 이뤘다. 현재 광섬유시장 최저가격이 160위안 /km까지 떨어졌다. 광섬유 시장가격은 지난해 연초 km당 200여 위안에서 300위안, 1,000위안으로 잠시 상승했다가 다시 500위안, 200위안, 100여 위안으로 떨어지는 등 1년여 짧은 기간에 큰 폭의 가격변동세를 이루었다. 과거 광섬유가격이 지속 하락세를 이뤘으나, 2001~2002년처럼 1년간 큰폭의 변동세를 보인 것은 처음이다. 현재 경쟁심화에 따른 출혈경쟁으로 많은 중국내 광섬유 업체의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광섬유 가격하락 원인」

- 수입관세율의 하락 : WTO가입에 따라 기존의 10%, 18%에서 각각 9%, 10.6%로 하락
- 세계 경제발전 둔화 및 소비수요 감소 : 2001년 세계 광섬유의 실제 수요량은 1억km로 연초 예상치 대비 20%정도 수요가 줄어들었으며 2000년 대비 약 10% 늘어났다. 아울러 세계 광섬유시장 가격의 급격한 하락세는 중국시장 가격인하에도 영향을 끼쳤다.
- 생산규모 확대 : 광섬유 시장의 발전전망을 근거로 중국내 많은 생산업체가 생산 규모를 확대해 시장 수급관계가 수요초과에서 공급초과로 전환됐다. 96~2000년간 세계적으로 확대생산 투입규모가 49억 달러에 달했고, 이중 1/2이상이 2000년에 진행되었다. 이로써 세계 광섬유 생산성이 70% 확대되어, 99년의 7,700만km에서 2001년 1.45억km로 늘어났다.
- 시장경쟁 심화 : 맹목적인 생산확대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특히 12개 대형 광섬유기업의 설계 및 생산성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동종제품의 시장가격 인하를 주도했다.

올해 중국의 광섬유 수요량은 약 800만~900만km인데 국내 실제 생산력은 이미 2,500만 km에 달해 공급과 수요의 비례가 3:1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업계 인사들은 내년 중국 광섬유시장이 수급평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었으나, 현재의 추세로 볼 때, 2005년에 이르러 수요량이 1,000만~1,200만 km에 달해 현재의 생산력으로도 충분한 상황이다.

중국내 다수 광섬유 기업은 중외 합자기업으로, 해외 선진장비, 기술을 도입해 수년간 합작 생산한 결과 생산능력 및 품질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국내 합자기업의 경우, 중국측에 광섬유 모형봉 제작 기술을 양도하지 않는다는 불명문화 된 규정이 있어, 선진 제조기술은 여전히 외국측에 장악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 연간 생산력이 100만km이상인 광섬유 생산업체가 8개이며, 중국내 연간 총 생산력은 1,550만 km로 2001년 광섬유 총 수요량을 훨씬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90년대 중반기 중국내 광섬유 기술이 낙후해 수입산 광섬유의 시장점유율이 80%에 달했으며, 90년대 후반기에 들어 점차적으로 40~50%로 하락했다. 한편, 2001년 4월부터 북미 및 유럽지역의 광섬유시장이 경제침체 영향으로 매출량이 대폭 하락함에 따라 이들지역의 생산기업들은 판촉전략을 바꾸어 중국시장 진출을 강화했다.

금년도 수입산 광섬유의 중국시장 진출은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외국산, 중국산의 시장경쟁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제품별로 한국, 일본, 미국산 광섬유제품이 중국시장에 저가로 판매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산 광섬유의 경우, 130위안/km까지 판매되고 있어 중국기업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의 의혹을 보이고 있다.

광섬유 시장가격이 국제시장과 편차가 크며, 가격하락여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 구미지역은 지속 km당 2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도 일정액의 수익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가격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이다. 한국 광섬유는 이미 km당 18달러에 달했으며, 코닝, 루슨트 등 주요 생산업체는 여전히 20달러 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

현재 중국내 광섬유 생산업체는 수익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99년~2001년 상반기까지 만 해도 광섬유 업체는 비교적 좋은 수익실적을 보였으나 그 후 과잉 공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시장균형이 상실되었고, 가격하락의 폭 및 속도는 그 전례가 없었을 정도로 낮은 상황이다.

한편, 국가의 국산품 추진 조치 일환으로 중국 대형 광섬유 경영업체 본부는 국가급 장거리 광섬유 간선 등 중요 건설 프로젝트에 중국산 광섬유를 타당성 상품으로 선정 했으나, 中級 경영업체의 경우, 여전히 외국산 광섬유를 지정품목으로 하고 있어, 중국의 1급 간선은 국산품, 2급 간선은 외국산을 이용하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서남부 통신케이블 시장 동향」

중국은 세계 제 3대 전선, 케이블 생산대국으로 생산업체가 4,700여개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 효율이 낮고 신형기술제품이 적고 중소기업이 많은 상황이어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시내전화용 통신케이블 생산업체는 500여개이며 그 중 광케이블과 광섬유의 전문 생산업체가 180여개다. 광섬유 생산업체는 주로 합자기업이며 상하이(上海), 우한(武漢), 난징(南京), 선전, 청두(成都), 항저우(杭州) 등 지역에 소재해있다.

이들의 총 생산량은 1,300만 core km/년이며, 생산능력을 확대 중으로 2004년에 가면은 광섬유 생산량이 4,000만 core km/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 중국 광섬유 총 수요량은 1,088만 core km로서 2000년에 비해 23.8% 증가했다. 중국은 현재 40% 정도의 광섬유를 수입하고 있다. 케이블은 기본적으로 국산화되었고 케이블의 경우 중국산제품이 95%이상의 시장을 점하고 있다.



중국 서남부지역은 통신 케이블 네트워크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성과 성 사이 통신케이블 주간선, 광대역구간, 지역망 건설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대용량, 설치용이, 수리유지용이 등 특성을 띤 광대역망 건설이 활기를 띠고 있다.

중국서남지역 케이블 시장은 전체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월하는 상황이며, 생산업체는 대부분 중규모이며 각 성마다 소재하고 있다. 광섬유를 생산하는 업체는 많지만 광섬유원자재(플라스틱 또는 고무 절연도로, 광섬유 등)를 생산하는 업체는 적음으로 광섬유는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

1994~2000년 도시의 통신공사가 늘어나면서 통신망과 통신선로의 용량이 대폭 증가되었다. 동시에 기술 발전에 따라 광섬유통신능력이 10년 전에 비해 100배 제고되면서 근년들어 도시 광섬유 사용량의 증가속도가 느려지고 증가율도 매년마다 낮아지고 있다. 서남지역의 비교적 발달한 도시에는 집집마다 광섬유가 연결되어 있다. 현재 잠재된 시장은 개발중인 중소도시 통신망 건설분야이다.

통신용 케이블은 주로 전화, 인터넷, 화상전달, 금융교환 등에 쓰이고 있으며 주요 사용업체는 중국톄쑤(中國電信), 중국롄통(聯通), 중국테통(中國鐵通), 중국왕통(中國網通), 중국광뎬(中國廣電) 등 기업이다.

현지 기업들의 동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쓰촨전자통신(四川電信公司)에서 2000년에 108억 위안을 투입해 130만회선을 추가했으며, 현지통신망도 3,306km(99년도 5,000km 신규 증가, 현재 규모 64,300여km에 도달함.)를 추가했다. 쓰촨이동통신(四川移動通信)에서 스촨(四川)성 지역내에 약4만km 케이블을 추가하였다. 쓰촨롄통(四川聯通)에서는 청두(成都)-시안(西安) 1급 케이블간선 건설을 완공하였다. 관련 망들이 속속 완공되고 있는 것이다.

윈난톄쑤(雲南通信)회사에서 설치한 케이블 총 길이는 45,000km로(2000년) 윈난성 전체에 케이블을 보급했다. 2000년 충칭톄쑤(重慶通信)에서 설치한 케이블 총 길이는 30,000km를 넘어섰으며 그중 장거리 케이블이 5,580km에 달했다.

중국톄쑤(中國通信), 중국롄통(中國聯通)은 중국서남지역에서 제일 큰 통신용 케이블소비자이며 중국광뎬(中國廣電), 중국왕통(中國網通), 중국테통(中國鐵通) 등 회사들은 점차 서남부로 발을 넓히고 있으며, 자회사의 통신망을 건설할 예정으로 있어 통신케이블시장에서 잠재된 대형 소비자들이다. 예를들면 중국왕통(中國網通)에서 금후 2-3년 내, 청두(成都)-시안(西安), 충칭(重慶)-우한(武漢), 청두(成都)-충칭(重慶) 등 몇 천킬로미터에 달하는 케이블 주간선을 건설할 예정이다. 중국광뎬(中國廣電)회사에서 윈난(雲南), 충칭(重慶) 케이블 주간선 건설중이다.

이미 건설된 케이블간선과 중국의 몇 개 대형통신업체의 업무가 전국범위로 확대되고 있다. 각 성 사이 케이블 주간선 주요 소비자는 중국광뎬(中國廣電), 중국왕통(中國網通), 중국테통(中國鐵通)이고, 성 내 케이블망, 케이블망간선용 통신케이블 주요 사용업체는 여전히 중국톄쑤(中國電信)와 중국롄통(中國聯通)회사이다.

「중국, 세계 4대 TFT-LCD 생산기지로 부상 전망」

대만정부 산하 資策會는 2003년 전세계 대형 TFT-LCD 패널 수요량은 올해의 6,390만개에서 8,851만개로 늘어날 전망이며, 2005년 중국은 최소 3개 이상의 6세대 TFT-LCD 패널 생산공장이 양산단계에 들어감으로써 중국의 TFT-LCD 생산액이 사상 최초로 100억불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資策會는 금년도 전세계 대형 TFT-LCD 패널 수요량은 6,390만개로 작년도 4,095만개 대비 56% 증가했으며, 내년도에는 8,851만개로 38.5%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고, 5세대 제품 공장이 속속 양산체제에 들어가면서 LCD TV 출시도 점차 대화면 제품으로 이전, 내년도 4/4분기에는 20인치 이상 제품비중이 35%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오는 2005년에는 중국이 한국과 일본, 대만에 이어 세계 4대 TFT-LCD 생산기지로 부상할 것이며 대만의 TFT-LCD 업계는 자금과 원가를 쫓아 중국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2004년말까지 2개의 5세대 TFT-LCD 패널 공장이 양산체제에 들어가며, 2005년까지 최소 3개 이상의 6세대 TFT-LCD 패널 공장이 양산에 돌입함으로써 중국의 TFT-LCD 생산액은 사상 최초로 100억불을 넘어설 것이라고 資策會는 전망했다.

중국의 TFT-LCD 제조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시장에서 중국과의 치열한 시장경쟁이 전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 업계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향후 중국내 대형 TFT-LCD 제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한 전략 마련에도 시급히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제공: 전자부품연구원 국제협력팀〉

